

2020년 1월 29일

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사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미 증시, 지표 개선 및 실적 주목하며 상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Vs. 경제지표 개선, 애플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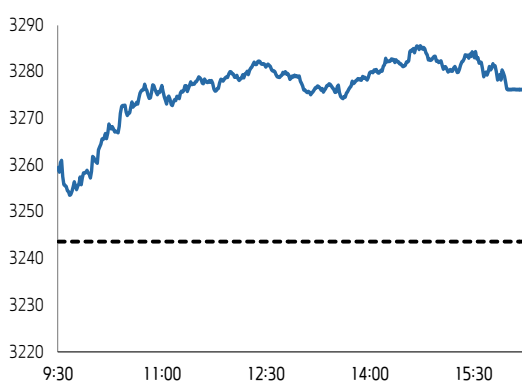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변화요인: ①경제지표 ②애플 효과 ③신종 코로나바이러스

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출발. 더불어 개선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투자심리에 도움이 된 모습.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은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향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 봐야 한다는 신종론이 제기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지표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 증시는 강세(다우 +0.66%, 나스닥 +1.43%, S&P500 +1.01%, 러셀 2000 +0.86%)

미 증시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. 이는 ①경제지표 개선 ②애플 효과 ③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. 먼저 경제지표 개선인데 1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(128.2)이나 예상(127.8)을 상회한 131.6으로 발표. 세부항목을 보면 현재 여건 지수(170.5→175.3)는 물론 기대 지수(100.0→102.5)도 개선돼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표. 특히 현재 여건이 좋다는 응답이 40.8%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, 컨퍼런스 보드 또한 “고용 상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 개선세가 이어졌다”라고 주장. 대체로 1차 미-중 무역협상 타결 후 심리지표 개선이 이어지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속 미 증시 상승 확대 요인

여기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(+2.83%)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 요인. 특히 부품 회사들에게 상반기에 생산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시킬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종목들과 반도체 업종도 동반 급등.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생산량 확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나, 이러한 생산량 급증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.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중국 경제지표 및 향후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음. 그렇지만 당장 시장 참여자들은 발표되는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, 그리고 중국 경기 위축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을 찾는 양상. 한편, WHO 사무총장이 중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이며 여전히 비상사태 선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한 점도 안정 요인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종류(%)	Close	D-1	지수종류(%)	Close	D-1
KOSPI	2,176.72	-3.09	홍콩항셱	27,949.64	휴장
KOSDAQ	664.70	-3.04	영국	7,480.69	+0.93
DOW	28,722.85	+0.66	독일	13,323.69	+0.90
NASDAQ	9,269.68	+1.43	프랑스	5,925.82	+1.07
S&P 500	3,276.24	+1.01	스페인	9,484.20	+1.26
상하이종합	2,976.53	휴장	그리스	933.43	-0.30
일본	23,215.71	-0.55	이탈리아	24,027.63	+2.61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2.40%

애플(+2.83%)은 아이폰 부품 생산을 10% 증가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. 이에 힘입어 쿼보(+3.26%), 스카이웍(+2.49%), 브로드컴(+3.00%) 등도 동반 상승했다. 더불어 마이크로론(+1.91%), 퀄컴(+2.41%), 인텔(+2.47%) 등 반도체 업종 강세에도 영향을 줬다.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40% 상승했다. 한편, 애플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외로 2.7% 상승하고 있으며, 부품주도 대체로 1% 내외 상승 중이다. 제록스(+4.94%)는 예상보다 양호한 가이던스 발표하자 상승했다. 스타벅스(-0.15%)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소폭 하락 중이다.

JP모건(+1.82%), BOA(+1.19%) 등 금융주는 채권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. 메이시스(+3.02%), 갭(+2.49%), L브랜드(+1.88%) 등 소매 유통업체들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없자 강세를 보였다. 반면, 화이자(-5.13%)는 통증 치료제 인 리리카의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여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했다. 3M(-5.73%)은 아시아 지역의 수요 부진으로 올해 이익이 부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했다. 코노코필립스(+0.23%), EOG리소스(+0.53%) 등 에너지 업종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+1.37%	대형 가치주 ETF(IVE)	+0.67%
에너지섹터 ETF(OIH)	+1.17%	중형 가치주 ETF(IWS)	+0.87%
소매업체 ETF(XRT)	+0.58%	소형 가치주 ETF(IWN)	+0.59%
금융섹터 ETF(XLF)	+1.14%	대형 성장주 ETF(VUG)	+1.42%
기술섹터 ETF(XLK)	+1.91%	중형 성장주 ETF(IWP)	+1.18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+1.15%	소형 성장주 ETF(IWO)	+1.05%
인터넷업체 ETF(FDN)	+1.08%	배당주 ETF(DVY)	+0.94%
리츠업체 ETF(XLRE)	+0.25%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+0.74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+1.95%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+0.37%
바이오섹터 ETF(IBB)	+1.06%	미국 국채 ETF(IEF)	-0.34%
헬스케어 ETF(XLV)	+0.49%	하이일드 ETF(JNK)	+0.86%
곡물 ETF(DBA)	+0.25%	물가연동채 ETF(TIP)	-0.15%
반도체 ETF(SMH)	+2.51%	Long/short ETF(BTAL)	-0.26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419.59	+0.41%	-4.71%	-7.77%
소재	371.00	+0.98%	-2.34%	-3.51%
산업재	695.72	+0.63%	-1.19%	+0.63%
경기소비재	985.22	+0.98%	-1.87%	-0.68%
필수소비재	652.12	+0.12%	-1.01%	+0.33%
헬스케어	1,189.86	+0.48%	-2.33%	-0.22%
금융	501.89	+1.13%	-1.75%	-1.95%
IT	1,701.97	+1.87%	-0.14%	+5.40%
커뮤니케이션	187.48	+1.18%	-1.85%	+2.36%
유틸리티	347.48	+0.37%	+1.62%	+6.32%
부동산	247.88	+0.30%	-0.18%	+3.67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제한적 반등 예상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08%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.84% 상승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,509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1.35pt 상승한 294.35pt 로 마감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76.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일 한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. 그러나 미 증시에서 보듯 당장 나타나는 경제지표 특히 심리지표들은 1 차 미-중 무역협상 타결에 힘입어 양호한 결과를 내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. 더 나아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 또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. 여기에 전일 세계보건기구(WHO)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표한 점, 그리고 여전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점 또한 투자심리 안정 요인이다.

이런 가운데 애플이 부품사들에게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을 10% 늘릴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또한 긍정적이다. 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40% 상승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.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생산 위축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, 올 봄에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 이상의 수요로 인해 상반기 애플 매출이 급증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미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3%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.

결국 한국 증시는 양호한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 및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,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. 다만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1분기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심리지표 개선 지속

1 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(128.2)이나 예상(127.8) 보다 개선된 131.6 으로 발표되었다. 현재지수 및 기대지수 모두 전월 대비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다.

12 월 미국 내구재주문은 전월 대비 2.4% 증가해 지난달 발표(mom -3.1%)나 예상(mom +0.5%)를 크게 상회했다. 그러나 운송을 제외한 주문은 전월(mom -0.4%)보다는 양호한 전월 대비 0.1% 감소로 발표되었으나 예상(mom +0.2%)을 하회했다.

1 월 리치몬드 연은지수는 전월(-5)이나 예상(5)을 크게 상회한 20 으로 발표되었다.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주(-13→13)는 물론 고용지수(7→20), 출하지수(-6→29)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위험자산 강세

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.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수요 부진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OPEC 이 3 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. 다만,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반등폭은 제한됐다.

달러화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. 한편, 중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글로벌 각국으로의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약화시키며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. 한편,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.25% 강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은 안정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.

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 및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다. 한때 10 년물 국채금리가 1.6%를 하회하기도 했으나, 이러한 경제지표 개선 및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. 더불어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(2.43 배)을 하회한 2.37 배를 기록하고 간접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(60.1%)을 하회한 58.0%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부진 또한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.

금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더이상 생기지 않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속 하락했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휴장이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53.48	+0.64	-8.39	Dollar Index	97.979	+0.02	+0.46
브렌트유	59.51	+0.32	-7.86	EUR/USD	1.102	+0.01	-0.56
금	1,575.80	-0.50	+0.75	USD/JPY	109.13	+0.21	-0.67
은	17.458	-3.31	-1.97	GBP/USD	1.3022	-0.27	-0.21
알루미늄	1,752.00	-0.68	-3.97	USD/CHF	0.9729	+0.34	+0.43
전기동	5,703.00	-0.70	-7.42	AUD/USD	0.6758	-0.04	-1.27
아연	2,230.00	-0.45	-9.15	USD/CAD	1.3164	-0.23	+0.72
옥수수	386.50	+1.58	-0.26	USD/BRL	4.1901	-0.49	-0.56
밀	569.75	-0.44	-2.02	USD/CNH	6.9678	-0.27	+0.85
대두	895.00	-0.25	-2.29	USD/KRW	1176.70	+0.68	+1.49
커피	105.05	-1.45	-5.40	USD/KRW NDF1M	1176.30	-0.06	+0.63

10 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 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1.651	+4.30	-12.33	스페인	0.313	+3.50	-10.70
한국	1.601	-9.90	-13.90	포르투갈	0.335	+3.20	-12.60
일본	-0.039	+0.50	-4.40	그리스	1.174	+1.20	-19.50
독일	-0.341	+4.40	-9.30	이탈리아	1.030	-0.50	-33.90